

부동산투자자이민 10억으로 가닥

도, 당초 15억원 검토... 공익이민제 감안 하향
F2 외국인 2주·F5는 4주 의무 체류 포함 결정
2023년 4월 30일 만료되는 시행 기간 연장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투자자이민 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가 부동산투자자이민 기준금액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 규모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부동산투자자이민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용역' 결과를 반영해 부동산투자자이민 기준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1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투자자이민협회를 개최해 부동산투자자이민 금액을 5억원에서 7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외국인 체류에 따른 관광수입 효과를 고려해 투자자들의 의무거주기간을 제도 개선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거주비자(F2) 외국인은 2주, 영주권(F5) 외국인은 4주 등

안 국내 체류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지역 신성장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신성장산업투자자이민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자금 활용 및 규모 있는 투자이민 펀드 조성을 위해 이미 운영 중인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를 활용해 신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일정 금액을 공익사업투자이민펀드에 투자할 경우 거주비자(F2) 발급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권(F5)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제주에서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5억원)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권(F-5)을 주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1월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을 기존 관광단지, 유원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개발사업 승인을 얻는 관광단지와 관광지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했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자이민제를 통해 지난해까지 1909건·1조 2586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증가 등 지방재정 수입확충 및 개발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도는 제도시행기간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제주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자이민제 시행 지역은 제주도내 강원도, 전남, 인천, 부산 등 5개 지자체·7개 지구이다. 이중 제주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강원 평창알펜시아·전남 여수경도의 경우 시행 기간이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선 8기 투자환경변화를 반영한 투자이민제 발굴과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안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연말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폭염 속 만개한 노랑어리연꽃.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25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남생이못에 노랑어리연꽃이 활짝 피어났다. 노랑어리연꽃은 추미진 곳에 서식하는 개체일수록 진한 황색 꽃을 띄우며, 오후 3시 무렵이면 꽃잎을 닫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희만기자**

거문오름 용암길 태고의 신비 맛본다

7월 28일~8월 1일 제13회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행사 기간 미공개 구간 개방... 체험부스도 운영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거문오름의 미공개 지역이었던 '용암길'의 문이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5일간 '제13회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거문오름국제트레킹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도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 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류가 지표의 경사면을 따라 해안으로 흐르면서 만들어진 동굴군으로, 전체 길이는 14km로 추정

되고 있다.

이번 트레킹 행사 기간에는 거문오름 중에서도 평소 일반에 개방되지 않았던 용암길이 공개된다.

트레킹 코스는 태극길(분화구 내 부와 정상부 능선을 따르는 순환코스·10km)과 용암길(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내려간 구간·6km) 등 총 2곳이다. 태극길은 정상(1.8km·1시간) 또는 분화구(5.5km·2시간 30분), 능선(5km·2시간) 코스로 탐방 가능하며, 태극길 분화구에선 세계자연유산 해설사와 함께 분화구 내를 돌며 해설을 들을 수 있다.

탐방은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입장 마감은 오후 1시로 탐방 전에 반드시 탐방안내소에서 사전 안내와 출입증을 받아야 입장이 가능하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오는 28일 오전 11시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진행되는 개막

식에서는 가수 신호범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거문오름 풍물단의 길놀이 공연이 진행된다.

또 행사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계자연유산지구 음식과 도라지즙·분말 제품 홍보, 천연 벌레퇴치제 만들기 등 유산마을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아울러 행사코스 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사회 관계망(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당일 확인 후 소정의 기념품(선착순)을 받을 수 있다.

트레킹기간에는 탐방객을 위한 무료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용암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까지 평일 30분, 주말 20분 간격으로 순환버스가 다닌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국제트레킹 페이스북 또는 거문오름국제트레킹위원회(064-750-2543)로 연락하면 된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하멜 표착 369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8월 12일 라마다프라자... 국내외 전문가 등 참석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12일 오전 10시 제주시 라마다프라자에서 '하멜, 유럽과 아시아의 글로벌 공영(共榮) 비전'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하멜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선원으로 근무했으며, 1653년 8월 무역선(스페르웨르호)을 타고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제주도 인근에서 배가 난파돼 일행 36명이 제주에 표착했다. 하멜 일행은 조선에서 13년간 활동하다가 네덜란드로 귀국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의 대주제인 '하멜, 유럽과 아시아의 글로벌 공영(共榮) 비전'을 중심으로, 이윤영 전(前) 주 네덜란드 대사가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전경수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제주대학교 김동진 교수(부총장)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보데인 알라번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와 네덜란드 호르름시 간 2017년 청소년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이번 세미나에 호르름시 부시장과 보데인 알라번 교수가 처음 제주를 방문함에 따라 제주와 네덜란드 간 국제교류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1227
잠정집계 25일	누적 26만534
<small><17시 기준></small>	



2022.7.31일

천지학생체육관 · 서귀포다목적체육관

남자복식 | 여자복식

승급대회

2022 요넥스컵

제22회 뉴제주일보旗

제주도배드민턴대회

주최 | 뉴제주일보

협찬 | 요넥스코리아 YONEX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
Jeju Badminton Association, Korea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LU PROVINCE DEVELOPMENT CO.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